

# 선진안전,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51호 자랑스런 안전인GS파워주식회사  
전 현 응 과 장




당신이 보낸 오늘은 어제 안전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던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기를 갈망하던 내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어느새 들뜬 푸른 풀과 이름 모를 들꽃에 스며들어 우리 곁에 다가왔다. '5월은 푸르구나'로 시작되는 동요를 부르던 어린 시절의 5월이 그리워지는 것은, 이미 순수했던 모습을 잃어서 인지 모르겠다. 이번 호에서는 오랜 세월 안전에 대한 변함없는 순수함을 잃지 않은 GS파워주식회사의 정현웅 과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안전의 길을 선택했던 그 순간, 전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정현웅 과장은 현재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GS파워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이다. 전공은 원래 전기공학이며 대학원에서는 경영을 공부하였지만 안전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그는 한전시절 발전소 건설이나 운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현실에서 과연 안전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수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한다.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된 노동, 그로인한 사고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그야말로 안전제일이 아니라 안전은 온데간데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95년에 일본으로 해외교육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느낀 그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제일주의 작업진행은 그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안전이 하루빨리 선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는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97년에는 독학으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게 되었다.

2000년 9월 한국전력공사 부천발전소가 민영화되면서 그는 주저 없이 안전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당시 그의 나이 43세,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동안 바래오던 꿈이 실현된 것처럼 아직도 그 때의 선택과 결정은 생애에 가장 멋진 일이라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는 우선 선진안전기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후, 단점들을 보완하여 도입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우려한 반발과 비판들이 있었다고 한다.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었지만 그 동안 확신을 갖고 진행한 일이라 그는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주위를 설득해 나갔다. 그러한 노력들은 선진제도의 정착과 무재해의 달성이란 결과로 다가왔다고 하며 활짝 웃는 그의 모습에서 보람과 함께 기쁨을 엿볼 수 있다.

안전은 자신의 경험에서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사고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 묻자, 안전에 대해 더 공부해서 안전기술사를 획득하고 외국 선진 안전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 말하는 정현웅 과장, 안전에 대한 그의 열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임재근 기자〉